

어떻게 글쓰기를 할 것인가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은 기본
주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되 한 주제에 집착하면 편벽... 깊고 넓게 공부해야

글_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 비주얼이 그만큼 중시되는 사회라는 뜻이다. 글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거꾸로 글쓰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는 비주얼의 바탕이 결국은 글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글이 없다면 인터넷의 기능은 90% 이상이 마비되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만 간다. 이는 글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기본 도구이다. 글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도구, 즉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도구라는 사실에 성공적 글쓰기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쓰기의 법칙 중에서 유명한 것은 당송(唐宋) 팔대가의 한 사람인 송나라 구양수(歐陽修)의 삼다론(三多論)이다.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이 그것이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는 뜻이다. 이 중 다상량(多商量)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

다상량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에 주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제 있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동서고금의 고전들을 섭렵한 철학자가 아니라면 ‘인간은 무엇일까?’ 같은 거대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시간낭비로 끝나기 십상이다. 다상량의 생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의 예를 들면 《조선왕 독살사건》을 쓸 때 ‘왜 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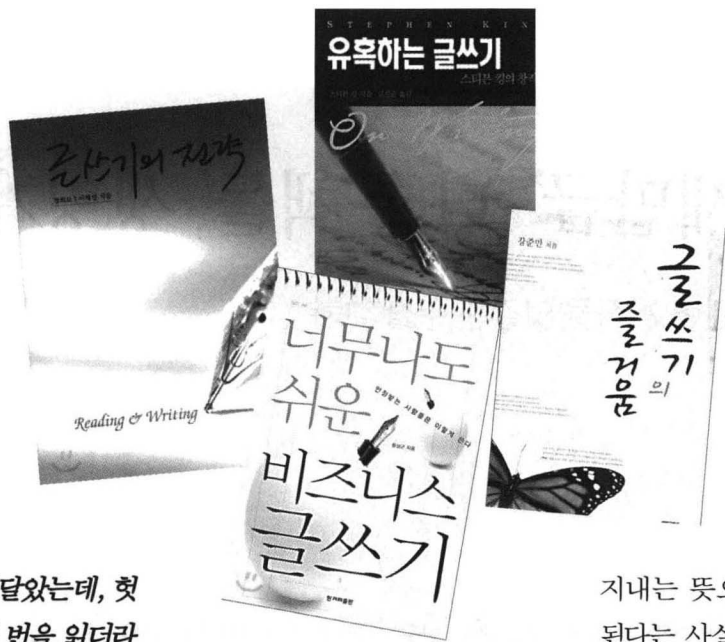
는 독살설에 휘말렸을까?’를 수없이 생각했다. 소현세자와 효종, 현종, 경종 등 《조선왕 독살사건》에 등장하는 다른 임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생각만 많이 한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 생각에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조선왕조실록》을 수도 없이 읽었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는 다독(多讀)에서 나온다. 많이 읽어야 많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삼다론(三多論)을 주창한 구양수의 별호(別號)는 육일옹(六一翁)이다.

장서(藏書) 1만 권, 《집고록》(集古錄) 1천 권, 거문고 1장(張), 바둑 1국(局), 술 1호(壺)에 노인(老人)을 합해서 붙인 호칭이다. 장서는 말 그대로 소장하고 있는 책이 1만 권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집고록》(集古錄)은 옛 고전에 주석을 단 책을 말한다.

나머지는 독서하고 글 쓰는 외중에 휴식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거문고와 바둑과 술이 주(主)가 아니라 독서가 주(主)이다. 구양수의 별호는 그가 얼마나 많은 독서를 한 사람인가를 말해준다. 많은 독서의 결과는 많은 생각을 낳게 마련이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난다. 그 수준에 다다르면 무엇을 쓸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글쓰기는 많은 공부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독서법을 보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들에게 독서의 방법에 대해 이렇게 편지를 썼다.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해서 자못 깨달았는데, 헛되어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은 하루에 천 번 백 번을 읽더라도 오히려 읽지 않은 것과 같다.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한 글자라도 뜻을 모르는 곳이 나오면 모름지기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깨달아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한 가지 책을 읽더라도 수백 가지의 책을 아울러 엿보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읽은 책의 의리(義理)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알아야 한다.

‘학유에게 부친다’ (寄游兒)

정약용의 독서법은 독서 도중 한 글자라도 모르는 곳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 뜻을 밝히려는 것이다. 정약용은 그 방법을 기조취도(既祖就道)라는 단어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기조취도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노신(路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뜻하는데 사마천의 《사기》(史記) 《자객열전》(刺客列傳)에 나오는 단어이다.

가령 《사기》 《자객전》을 읽을 때 기조취도(既祖就道)라는 한 구절을 만나 “조(祖)는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으면, 스승은 “이별할 때 지내는 제사다”라고 답할 것이다. 다시 “그렇다면 그러한 제사에다 꼭 조(祖)라는 글자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서 스승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다면 나중에 집에 돌아와 사전에서 조(祖)라는 글자의 본 뜻을 찾아봐라.

‘학유에게 부친다’ (寄游兒)

정약용은 ‘조(祖)’라는 글자를 찾아보면 그것이 제사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은 옛날 황제의 아들 누조(累祖)가 여행을 좋아하다가 길에서 죽은 다음부터 길에다 제사를

지내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정약용은 조라는 글자 하나로 얼마나 깊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 사전의 뜻을 근거로 다른 책을 들추어 그 글자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고찰해 보고, 그 근본적인 뜻과 지엽적인 뜻도 뽑아두고, 또 《통전》(通典)이나 《통지》(通志),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의 책에서 ‘조제’ (祖祭)의 예를 모아 책을 만들면 문득 없어지지 않는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에는 한 가지도 모르고 지냈던 네가 ‘조제’의 내력까지 두루 아는 사람이 되어 비록 이름난 큰 학자라도 ‘조제’에 대해서는 너와 다투지 못하게 된다. 이 어찌 큰 즐거움이 아니겠느냐?

‘학유에게 부친다’ (寄游兒)

정약용의 독서법에는 다독(多讀)·다상량(多商量)·다작(多作)이 모두 들어가 있다. ‘조(祖)자가 왜 제사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많이 생각한다(多商量)’, ‘조(祖)자의 용례에 대해서 여러 책을 찾아가며 고찰한다(多讀)’, ‘조(祖)자에 대해서 여러 책에서 그 뜻을 모아 책으로 만든다(多作).’

정약용의 독서법은 그의 수많은 저작들이 그의 끝없는 공부의 결과물임을 알게 한다. 그가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책들을 저술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자연히 글은 써진다. 주의할 점은 한 주제에 대해서만 집착하다보면 편벽해질 수 있다. 깊고 넓게 공부해야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먼 대양을 마음껏 향해하는 선장이 될 수 있다. ■